

# 엄정한 논리의 베일에 가려진 세속적 욕망

헬 헬먼의 《과학사 속의 대논쟁 10》을 읽고

김우룡 | 사진가·의사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엄정한 객관성에 기초해 연구하고 논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학사 속의 대논쟁 10》은 이같은 통념을 뒤집는다. 과학자들도 세속의 필부들과 다를 바 없는 출세욕과 편견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예외적인 경우다. 과학사에서 '최후의 만능천재'라 평가받고 있지만, 현실에서 그는 패배자였다.

과학이 중립적인 관찰에 의해 정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한다는 종래의 생각을 뒤엎은 사람은 토마스 쿤이었다. 그는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관찰은 가능하지 않다는 칼 포퍼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세계를 이해하는 준거틀로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어느 한 시점의 준거틀은 그보다 우월한 다른 준거틀이 나타날 때까지 만 유용하다는 게 쿤의 주장이다.

## 과학자도 평범한 심성을 지닌 인간일 뿐

세계를 설명하는 과학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일 수만은 없다는, 따라서 언제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현재의 정통이론이 수정될 수 있다는 20세기 과학사가들의 선언은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과학적 이해라는 것도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시대적 해석에 의한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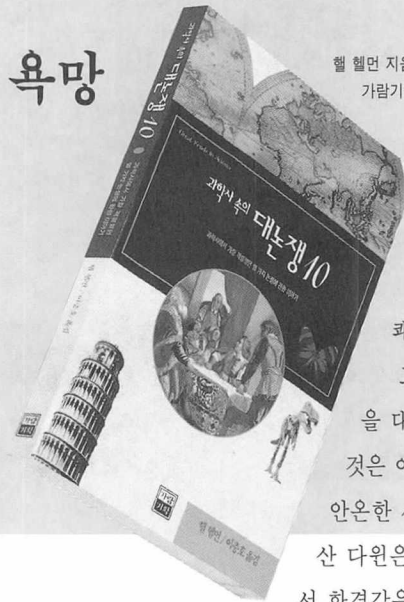
《과학사 속의 대논쟁 10》(헬 헬먼, 이충호, 가람기획)에서 지은이는 과학자도 여느 인간과 비교해 심성이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더 편협한 감정에 따라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10건의 과학 논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는 개인적 욕심과 질투심, 출세에 대한 야망, 종교적인 교조와 민족적 편견 등 인간의 모든 부정적 심리들이 망

라돼 있다. 엄정한 과학적 객관성이 논쟁의 판단 기준이어야 함에도 종종 그 이면에는 미묘하거나 노골적인 신념 또는 가치 문제가 대립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지적한다.

17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과학논쟁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 좌우됐다. 갈릴레이와 가톨릭 교회의 싸움은 논쟁이 아니라 일방적 탄압이었지만, 왜 하필 갈릴레이가 탄압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가는 흥미로운 부분이다. 갈릴레이는 과학적 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 시대의 상황 때문에 고초를 겪어야 했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대중적 인기로 영합하는 갈릴레이의 어두운 측면을 부각하고 있는 점이다. 곧 라틴어가 아니라 이탈리아어로 책을 썼다든지 과학자로서의 세속적 지위가 다져진 이후 16년 전의 논문을 정식 출간했다는 등 인간적 오만함을 들춰내고 있다.

## 현실에선 패했으나 역사에서 승리한 자들

약 4백년의 시간을 통과한 10건의 과학사의 논쟁을 다룬 이 책에서 인간의 깊이에 대한 어렵듯한 줄거리가 발견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현대에 이를수록 그 부박함이 현저해진다는 것이다. 누군가 왜 글을 쓰냐고 물었을 때 발자크는 "돈을 벌어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그 현실적 추구를 비난할 순 없지만 20세기에 들어서 는 과학의 장에서마저 인기와 돈이 그 중심에 당



헬 헬먼 지음, 이충호 옮김  
가람기획/A5신/344면/10,000원

당히 버티고 서 있음을 보는 것은 그리 유쾌하지 않다.

그렇다고 위안삼을 대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늘 수줍고 안전한 사람으로 평생을 산 다윈은 진화론 논쟁에서 한결같은 반응을 보였다

고 한다. 정작 자신이 내놓은 이론을 위한 싸움은 그를 옹호하는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해줬다.

한편, 라이프니츠의 장례식에 단 한 사람의 조문객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살아있는 학술원' '최후의 만능 천재'라고 불렸던 그가 현실에서는 얼마나 처절한 패배자였던가를 엿보게 한다. 그는 스스로를 역사와 철학과 과학 사이를 헤매면서 혼란한 삶을 살았던 불행한 사람으로 일컬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은이는 그런 현실적 자각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라이프니츠의 정신적 낙관주의를 강조한다. 지은이는 라이프니츠에게 '낙관주의의 기본 단위'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바쳤다. 그에 비한다면 마가렛 미드로 대표되는 이 책 속의 '영악한' 현대인들은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었다. 하지만 그 성공의 근거에는 언제나 선정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지은이는 20년 전에 들었던 과학논쟁에 관한 어느 강연에 자극 받아 집필계획을 세우고 20년 만에 한권의 책을 완성했다. 집필에 쏟은 세월도 세월이려니와 전 지구 단위로 답사하며 자료를 수집하는 그들의 오만한 저작 여건에는 질투의 감정마저 있다. 질투심에 힘입어 몇 권의 참고서를 뒤적이고 백과사전을 펼쳐 보기도 했다. 번역도 좋다. 하지만 역사에 대한 소개는 단지 이름 한줄뿐이다. 드문 조출함을 보는 즐거움도 있었다. ●